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1월 미 일자리 성장 둔화...작년에도 수정치 둔화
- FinanceYahoo: 미 소비자신뢰지수, 7개월 만에 최저

[미국 금융]

- FinanceYahoo: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 “올해 금리 완만한 하락 가능성”
- WSJ: 트레이더들, 오늘 일자리 발표로 연준 금리 인하 기대 낮춰
- FinanceYahoo: BofA “미국 증시의 글로벌 지배력 약화”

[미 행정부]

- Bloomberg: 트럼프,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확대 중단

[물류]

- WSJ: 파나마 “미 해군에 파나마 무료 운항 허용은 거짓”

[오일]

- Bloomberg: 유가 2% 이상 하락... 트럼프 관세 때문

[인공지능]

- WSJ: 빅테크 기업들, AI 지출 2배 늘려
- Bloomberg: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AI 수요 따라갈 수 없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FinanceYahoo: 아마존 매출, 월마트 넘어섰다
- CNNBusiness: LG, 전기 레인지 50만 대 리콜
- WSJ: 힐튼 “2025년 레저, 비즈니스 여행 수요 증가할 것”
- WSJ: 아마존, 예상보다 부진한 판매 전망
- WSJ: 호주 프랜차이즈 도미노피자, 일본 매장 폐쇄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Job Growth Slowed in January After 2024 Downward Revision

1월 미 일자리 성장 둔화...작년에도 수정치 둔화

- 작년에 연방정부가 당초 예상치보다 노동시장이 견조하지 않다는 수정치를 발표한 후에 1월 일자리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 오늘 금요일 연방 노동청의 발표에 따르면 비농가 1월 일자리가 14만3천개로 증가했다. 그 전 2개월간은 수치가 상향 조정되었다.
- 연방정부는 작년에 매월 18만6천건의 일자리 성장을 당초에 발표했으나 매월 16만6천건으로 수정했다.

- 올해 1월 일자리를 보면 일자리 성장이 둔화되었으나 인플레이션을 압박하지 않고 경제를 여전히 견조하게 이끌고 간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 또 이 같은 일자리 상태는 연준이 작년 3차례 금리 인하 후에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 한마디로 일자리가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FinanceYahoo: US Consumer Sentiment Drops to Seven-Month Low on Price Worries

미 소비자신뢰지수, 7개월 만에 최저

- 2월 초 미 소비자신뢰지수가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하락해 관세와 관련된 향후 인플레이션 우려를 촉발하고 있다.
- 오늘 금요일 발표된 미시간대학 2월 소비자신뢰지수 예비치는 3.3포인트 하락한 67.8을 기록했다.
-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은 내년 연 물가가 4.3% 높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지난달 예상치보다 1%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향후 5년에서 10년간은 연간 물가가 3.3%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 소비자들은 큰 물품의 구매 여건은 전월 조사 결과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 특히 트럼프의 관세 시행과 관련한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물가가 상승하면 소비자들은 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FinanceYahoo 기사

[미국 금융]

FinanceYahoo: Fed's Kashkari Says Rates to Decline 'Modestly' in 2025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 "올해 금리 완만한 하락 가능성"

-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인 Neel Kashkari는 "미국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견조하고, 특히 금리는 올해에 완만하게(moderately) 낮아질 것 같다."라고 말했다.
- 그는 CNBC와의 오늘 금요일 인터뷰에서 "지금 노동 시장 여전히 좋은 상태다.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핫한 상태가 아니다. 경제는 견조하고 비즈니스 업체들은 낙관적이다."라고 말했다.
- 그는 관세와 이민, 세금 이슈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얻을 때까지 이를 지켜보는 중이다. 현재 좋은 상황으로 보인다. 올해 말에 연방 금리가 완만하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FinanceYahoo 기사

WSJ: Traders Dial Back Rate-Cut Expectations a Touch After Jobs Report 트레이더들, 오늘 일자리 발표로 연준 금리 인하 기대 낮춰

- 투자자들은 파생상품 가격 지수를 근거로 오늘 연준의 일자리 발표로 실업률이 예상보다 감소한 이후에 금리 인하 기대감을 약간 낮추었다.
- LSE(런던증권거래소 그룹)에 따르면 여전히 연준이 올해 금리를 적어도 두 번 낮출지 아니면 2번 미만으로 할지에 대해 트레이더들 의견이 반반으로 나누어져 있다.

WSJ 기사

FinanceYahoo: BofA Statigist Hartnett Sees US Stock Market's Global Dominance Fading BofA “미국 증시의 글로벌 지배력 약화”

- 뱅크오브아메리카 전략가들은 미국 증시의 강력한 질주가 올해 초에 중단되면서 계속 약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이들의 평가에 따르면 브라질, 독일, 영국, 중국, 캐나다의 증시는 올해 현재까지 S&P 500의 수익률보다 높다. 이른바 ‘매그니피센트’가 오랫동안 주도했지만, 현재 이 같은 주도력이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 이들 전략가는 미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다른 경쟁국들보다 뛰어나다는 분위기가 줄어들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중동과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인 안정성에 베팅하고 있다고 말했다.
- 또한 중국과 미국의 무역·기술 갈등이 격화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중국 주식에 대한 매수 의견을 밝혔다.

FinanceYahoo 기사

[미 행정부]

Bloomberg: Trump Administration Halts Program to Expand EV Charger Network 트럼프,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확대 중단

-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프로그램을 후퇴시키는 행정명령의 결과로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연방 정부 지원이 중단됐다.
- 오늘 금요일 연방 교통부 산하 연방 고속도로국이 오늘 금요일 온라인으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NEVI 프로그램을 위한 주정부 지원금 승인이 중단됐다.

- NEVI(National EV Infrastructure) 프로그램은 주별 연결 고속도로를 따라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 NEVI 프로그램은 2021년 바이든 정부 당시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포함된 프로그램이었다. 해당 법안에 따라 향후 5년간 모든 주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데 50억 달러가 제공될 예정이었다.

Bloomberg 기사

[물류]

WSJ: Panama Accuses U.S. of Lying About Deal for Free Navy Canal Passage

파나마 “미 해군에 파나마 무료 운항 허용은 거짓”

- 어제 목요일, 파나마 대통령이 미 해군의 파나마 운하 무료 운항 관련 협상에서 미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이번주 수요일 밤, 미 국무부가 파나마 정부가 파나마 정부가 미 정부 선박의 파나마 운하 무료 운항을 제공하기로 동의했다고 X 미디어에 포스팅한 후 외교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파나마 대통령은 미 국무부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공격했다.
-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를 차지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WSJ 기사

[오일]

Bloomberg: Oil Set for Weekly Drop as Trump Tariffs Outweigh Iran Sanctions

유가가 2% 이상 하락... 트럼프 관세 때문

-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원유 수요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 때문에 유가가 3주째 하락세를 보였다. 브렌트유는 한 주 동안 2% 이상 하락했다.
-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로 중국의 원유 수요가 감소한 것이 미국의 이란 제재로 인한 공급 감소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무역 전쟁은 원유 수요를 줄일 수 있고, 현재 연말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 A/S Global Risk Management 수석 분석가 Arne Lohman Rasmussen은 “시장은 미국의 중국 관세가 경기 둔화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러시아 제재로 공급원이 차단된 아시아 민간 정유업체도 가동률을 최저치로 낮추는 등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럽 유가도 약세를 보

이고 있다.

Bloomberg 기사

[인공지능]

WSJ: Tech Giants Double Down on Their Massive AI Spending 빅테크 기업들, AI 지출 2배 늘려

- 빅테크 기업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는 올해 최소 2,150억 달러 자본 지출을 예상했다. 연간 45% 이상 증가한 수치다. 아마존은 최소 1,000억 달러 자본 지출 중 대부분을 AI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 DeepSeek의 등장으로 전례 없는 지출을 하고도 충분한 이익을 볼 수 있는지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있다. 하지만 AI 지출 경쟁은 여전하다.
- 빅테크 기업들은 기술 발전으로 비용이 저렴해지면 AI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WSJ 기사

Bloomberg: Amazon, Like Microsoft, Says It Can't Keep Up With AI Demand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AI 수요 따라갈 수 없다"

- 아마존은 올해 1,000억 달러 투자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수요를 맞출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했다. AI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전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 마이크로소프트도 지난주 AI 제품 수요에 비해 데이터 센터가 부족해 클라우드 매출 성장에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 아마존은 2024년 4분기 아마존 웹 서비스(AWS)에 263억 달러를 지출했고, AWS 매출은 19% 증가한 288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아마존 클라우드 부문은 3분기 연속 19% 성장을 기록했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FinanceYahoo: Amazon's revenue finally overtakes Walmart: Morning Brief

아마존 매출, 월마트 넘어섰다

- 2015년 7월 4일 아마존 시가총액이 월마트를 넘어섰다. 10년이 지난 지금, 아마존 매출이 월마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 작년 4분기 아마존 매출은 1,878억 달러였으며, 2월 20일 발표될 월마트 작년 4분기 매출은 1,800억 달러로 예상된다.
- 아마존은 단순한 월마트의 경쟁자가 아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스트리밍, 광고 서비스, 인공지능을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추가했다.
- 단순히 상품뿐만 아니라 편리함을 판매해 소매업의 영역을 뛰어넘어 아마존을 성장시키고 있다.
- 물론, 소매업 영역도 아마존의 주요 수익원이다. 작년 4분기 홀푸드, 광고, 타사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은 아마존 온라인 매출은 7% 증가한 756억 달러를 기록했다.

FinanceYahoo 기사

CNNBusiness: LG is sending free stickers to 500,000 customers who bought its recalled stove that caused 28 house fires LG, 전기 레인지 50만 대 리콜

- LG 전기 레인지가 최소 28건의 화재와 34만 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를 내 50만 대의 전기 레인지가 리콜되었다.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는 사람이 나 애완동물에 의해 의도치 않은 노브 작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 LG는 리콜 고객에게 부착 방법과 ‘잠금 버튼을 눌러 의도치 않은 작동을 방지하라’라는 문구가 있는 스티커를 제공했다.
- LG는 스티커를 통해 소비자들이 ‘Lock Out’ 또는 ‘Control Lock’ 기능으로 의도치 않은 노브 작동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CNNBusiness 기사

WSJ: Hilton Expects Leisure-, Business-Travel Demand to Continue to Grow in 2025 Despite Political Challenges 힐튼 “2025년 레저, 비즈니스 여행 수요 증가할 것”

- 힐튼 CEO Chris Nassetta는 경제 성장 전망이 작년 11월 대선보다 나아 보인다고 하며, 2025년에도 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예상했다.
- 힐튼은 강력한 4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레저 여행의 성장과 꾸준한 소비자 지출 덕분이었다. 비즈니스 여행도 올해 계속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과 대형 은행들이 이를 주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 Nassetta는 “11월 선거 이후 정치적 불명확성이 해소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중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의 기회가 커졌다.”라고 말했다.

WSJ 기사

WSJ: Amazon Earnings: Shares Fall After Sales Outlook Is Weaker Than Expected**아마존, 예상보다 부진한 판매 전망**

- 어제 목요일, 아마존이 예상보다 낮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또한 올해 AI 인프라에 기록적인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향후 예상보다 낮은 매출을 전망하면서 주식이 하락했다.
- 아마존은 1분기 순매출은 1천5백10억~1천5백55억 달러로 예상된다. 영업이익은 140억~180억 달러로 예상된다.
- 작년 4분기 순매출은 2023년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1천8백77억9천만 달러를 기록했었다. 순이익은 88% 증가해 200억 달러를 기록했었다.
- 아마존 CEO Andy Jassy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앱이 AI를 통해 재창조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마존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부 아마존 웹 서비스는 매출이 19% 증가해 287억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WSJ 기사

WSJ: Domino's Pizza Enterprises Ramps Up Japan Store Closures**호주 프랜차이즈 도미노피자, 일본 매장 폐쇄**

- 도미노피자의 새로운 CEO Mark van Dyck가 전임 CEO Don Meji의 코로나 시대 확장 전략을 뒤집으면서 일본 내 172개 매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 오늘 금요일 도미노 피자는, 전 세계에 총 205개의 적자 매장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연간 1천5백50만 호주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Van Dyck는 “코로나 기간 확장된 매장 중 일부는 고객에게 최적화되지 않았다. 이를 제거하면 오히려 네트워크가 강화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WSJ 기사

[보고서]**트럼프발 관세전쟁, 전세계 인플레이션 다시 불붙이나
연준, 금리인하 '관망 모드'...BIS,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전쟁의 포문을 열어젖히면서 가뜩이나 재점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전세계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재발을 우려하는 응답자가 지난해 11월 조사 당시 9%에서 12월 16%, 지난달 27%로 늘어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관세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취임 후 이달 1일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가 일단 중국에 대해서만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